

2010 문화계 결산

◎ 공연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던 2010년 공연계 화두는 5·18 30주년이었다. 그중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광주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공연돼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공연으로 되살아난 5·18 30주년

올해 지역 공연계의 화두는 5·18 30주년이었다.

'오월 광주'는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되살아났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뮤지컬 '화려한 휴가'. 작곡가 미하엘 슈티우다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화려한 휴가'는 광주 뿐 아니라 서울을 국립극장에서도 공연돼 '5·18 전국화'에 기여했다.

2011년에도 시의 지원금을 확보한 '화려한 휴가'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상업 뮤지컬'을 표방한 만큼 긴 러

올해 처음 실시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가능성과 동시에 숙제도 남겼다. 푸른연극마을, 극단 진달래피네, 임지현형대무용단, 한소리회 등 공연 단체와 유·스퀘어 문화관 등 공연장이 짹을 이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소리회 3시의 레이트' 등 좋은 공연 레퍼토리들이 지속적으로 올려져 호응을 얻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아쉬움을 남겼으며 특히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인 공연장들의 역할이 미미했던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다.

광주 대표하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서울 무대에

'다시래기' 샷포로 공연... 월드뮤직페스티벌 '호음'

내달 출범 '광주문화재단' 지역 문화계 최대 이슈

뉴타임 등 초연 때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시립예술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시립교향악단은 오디션을 통해 모집한 시민합창단 등 518명과 함께 말려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했고 무용단은 창작발레 '오월의 빛'을 무대에 올렸다. 국악관현악단은 창작곡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를 연주했다.

그밖에 강수자 오페라단의 '무등동등', 빛소리오페라단의 '꽃 지어 꽂 피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진단이 주최한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첫번째 행사였음에도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광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티켓 판매는 저조했지만 러시아 정통 사설주의 연극인 '스룹' 등 광주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을 소개, 공연 애호가들에게 높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20여년만에 광주에서 열린 전국무용제는 한국 무용의 흐름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기회였다.

연극계에는 경사도 많았다. 광주 연극의 든든한 베테랑인 조대극회와 전대극회가 각각 100회 기념공연을 무대에 올렸고, 극단 얼·아리는 고마나루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밖에 '김원중의 달거리-빵 만드는 공연', 박윤모의 모노드라마 '아버지', '천원의 행복' 등 브랜드화된 공연들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향의 구자범 상임지휘자가 내년 3월 경기도립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지역 클래식 팬들의 아쉬움을 산 반면 시립극단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40대 예술감독을 영입, 대규모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광주문화재단'의 출범은 지역 문화계의 최대 이슈였다. 재단은 기존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고, 광주공연예술재단이 진행했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 축제 행사와 광주아트페어 개최, 문화시설 운영 등을 이어받게 된다.

최근 인적 구성은 마치고 내년 1월 3일 공식출범할 예정인 문화재단에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재단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진 상태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느티나무숲'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산타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사연 골라 특별한 선물

'장바구니 전' 대인시장 활동 작가들의 작품 전시·판매

인한 상보도 소개된다.

또한, 이날 이벤트와 함께 미니파티도 열 계획이다. 문의 062-233-1420.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조각으로 보는 현대인들의 일상

위재환 초대전, 30일까지 무등갤러리

조각가 위재환씨가 오는 3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 갤러리가 짧은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이번 초대전에서 그는 '몽상가들의 도시'를 주제로 도시인들의 다양한 일상을 담은 조각품을 선보인다.

브론즈, 검은빛의 오석과 대리석을 이용해 만든 조각을 발표했던 그는 이번 전시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해 더욱 다양해진 표현과 의미를 담아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유독 손가락이 강조돼 있다.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거나, 여유로운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인물들은 본질 보다는 외형에만 신경쓰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아 있다.

조선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위씨는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고, 현재 PASS 비구상 조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몽상가들의 도시'

조진태 5·18재단 사무처장 두번째 시집 출간

조진태(49)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이 두 번째 시집 '희망은 왔다'(문학돌 펴냄)를 출간했다. 첫 시집 '다시 새벽길' 출간 후 11년만이다.

첫 시집이 80년 5월 이후 군사정권에 맞서 노동현장에 투신해, 민주화운동을 실천하며 얻은 경험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시집은 주로 민주화 이후 5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그간의 감흥을 엮어낸 것이다.



특히 시집에는 역사적 격동기를 열정적으로 같이 겪더었던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애듯한 감상이 절절하게 배어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울지마 톤즈' 관객 20만 돌파

광주극장·롯데시네마 상영

고(故)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그린 영화 '울지마 톤즈'가 관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는 '워킹소리'에 이은 2위의 기록이다.

지난 4월11일 KBS 1TV로 방송된 'KBS 스페셜-수단의 슈바이처'를 영화로 재편집한 '울지마 톤즈'는 지난 1월 대장암으로 48세에 별세한 이태석 신부의 삶과 죽음을, 수단에서의 불사 활동을 다룬 것이다.

지난 9월9일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평균 관객 점유율 75%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관객 10만 명을 모았고 이에 힘입어 개봉관이 54개로 확대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현재 롯데시네마와 광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울지마 톤즈'는 '2010 올해의 좋은 영상물', 제1회 'KBS 감동대상', 제20회 한국가톨릭 매스컴상 대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2010. 12. 8~2011. 2. 27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 展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기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속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法人 星谷 傳統文化研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作名·鑑定專門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GALLERY O'CLOCK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Salvatore Ferragamo BOSS
D&G